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<b>자본시장연구원</b><br>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<br><b>보 도 자 료</b> | 보고서명 | <b>임팩트투자 생태계 현황과 과제</b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문의   |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<br>(02-3771-0834, cp19@kcmi.re.kr) |

- 임팩트투자는 재무적 수익(financial return)에 더하여 긍정적이면서 측정이 가능한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추구하는 투자활동
  -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시장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
  - 우리나라 임팩트투자 시장의 현황과 성과를 진단하고, 투자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·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
- 지난 20여 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 임팩트투자시장은 비약적으로 발전
  - 임팩트투자를 표방하는 투자펀드에 대한 약정액이 2002년 약 300억원 수준에서 2024년 6.6조원으로 크게 확대하여 전체 벤처캐피탈펀드 시장의 12%를 차지
  - 임팩트투자가 주변적·실험적 영역을 벗어나, 국내 자본시장의 의미 있는 한 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단계에 진입하였음을 시사
  - 임팩트투자를 표방하는 투자펀드가 설정한 기준수익률은 일반 벤처투자펀드에 비하여 1%p이상 낮은 반면 재무적 성과는 양 자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
  - 임팩트투자펀드가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투자 의사 결정의 주요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우수한 재무적 성과를 거둔고 있음을 의미
- 임팩트투자 시장의 빠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의 도약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상존
  - 자금공 급원의 다양성과 자금공급 규모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며 특히 민간자금의 참여가 미흡
  - 투자 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사회적 가치의 측정 및 보고 체계 구축이 아직 미흡
  -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초기 투자 시장에 비하여 회수시장의 발전이 지체되어 투자 사이클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

○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지원과 노력 필요

- 정책금융 지원 수단의 규모 확대와 운용 유연화: 임팩트투자를 위한 정책 펀드 규모 확대, 회수시장 기반 강화 및 다양화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, 지분투자에 그치지 않고 융자·보증 등 자금공급 수단 다양화 등
-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제도 정비: 혼합금융(blended finance)을 활용한 투자 위험 감축 및 민간투자자 수익률 제고, 임팩트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, 공익법인 및 일반 영리기업의 임팩트투자 확대를 위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
- 사회적 가치 측정 등 임팩트투자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: 정부 주도의 획일적 시스템 구축은 지양, 민간의 다양한 접근법이 공존하면서 정렬(alignment)되는 다중시스템(multi-layer system) 유도,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활용